

‘증인’의 조건과 ‘행동과 연대’의 가능성

- 김봉구 ‘증인문학론’과 앙드레 말로의 관계를 중심으로 -

김진규*

1. 들어가며
2. ‘증인문학’: 세계적 동시성을 향한 욕망과 전도된 현실인식
3. 서양 정신의 세례와 불완전하고 극단적인 행동
4. 뿌리 뽑힌 인간과 연대의 불가능성
5. 문학, 정치, 김봉구
6. 나오며

1. 들어가며

김봉구는 한국 전후문학의 프랑스 문학 수용과 전쟁문학론, 1960년대 순수참여논쟁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에 비해 그의 비평과 문학론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김봉구에 대한 기존 논의는 주로 1950년대 지성계의 지형도와 1960년대 순수 참여 논쟁과 관련하여 이루어졌다.¹⁾ 전자는 근대화와 계몽 담론 그리고 반공이데올로기 등으로 실존주의의 사회 비판적 성격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수료.

1) 전자의 경우, 김건우, 2003 『사상계와 1950년대 문학』, 소명출판; 박지영, 2011 『번역된 냉전, 그리고 혁명: 사르트르, 마르크시즘, 실존과 혁명』 『서강인문논총』 31,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등이 있다. 후자의 경우, 고명철, 2006 『논쟁, 비평의 응전』, 보고서: 홍성식, 1999 『1960년대 한국문학 논쟁 연구』,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한강희, 1997 『1960년대 한국문학비평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변광배, 2013 『‘순수 참여문학’ 논쟁 재탐사: 사르트르의 <문학이란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인문과학』, 성균관대인문과학연구소 등이 있다.

등이 굴절되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인물로, 후자는 '순수-참여 논쟁'의 시발점을 마련한 인물로 그를 자리매김한다. 하지만 이 두 경향 모두 1950·60년대 문학의 흐름 속에서 김봉구를 살필 뿐이며, 그의 비평 전반에 대한 연구나 그의 문학과 당대 문학 텍스트와의 관련성 등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에는 김봉구의 비평이 전후 한국 현실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는 논의가 제기되었다. 장성규는 김봉구가 당시 누구보다 프랑스 문예사조를 체계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한국의 현실에 접목했음에도 그의 비평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음을 지적한 후, 그가 한국 사회의 현실 속에서 프랑스 실존주의를 독특하게 변용시키려 했다는 점을 논증하였다.²⁾ 김봉구는 실존주의를 휴머니즘의 문제와 결합해 '허망'과 '불안'을 넘어 '반항'으로 나아가야 함을 주장했고, 실존주의를 매개로 당대 문학계에 만연했던 니힐리즘적 경향을 적극적으로 비판했다는 것이다.³⁾ 이진영 역시 김봉구가 철학이 아닌 문학을 중심으로 실존주의를 받아들였으며, 당시 한국 문학이 '행동'과 '저항', '현실참여'를 강조하는 행동주의 문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문학의 사회적 부조리에 대한 저항의 전통과 사상을 회복하고자했음을 지적하였다.⁴⁾ 행동주의적 실존주의 수용을 통한 새로운 전후문학의 기획에 초점을 맞춰 김봉구의 비평을 검토하는 이러한 논의는 이제까지 실존주의를 도식적으로 수용했다고 평가를 받은 전후 문학계를 새롭게 바라볼 기회를 제공한다.

하지만 이러한 능동적인 전유 한편에는 탈식민지 남한의 지식인이 갖는 세계적 동시성을 향한 욕망과 한국 문학을 타자로 보고 경험하는 굴절된 시선의 내면화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로버트 영 등이 지적한 것처럼 근대 이후 비서구의 문학은 넓은 의미에서 비교 문학의 성격을 띠 수밖에 없다. 비서구 독자들은 그들 문화권의 작품을 직간접적으로 서구의 문학과 연결해 이해하고, 식민지배

2) 장성규, 2014 「프랑스 문예사조의 수용과 새로운 전후문학의 기획: 김봉구의 비평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35.

3) 위의 논문, 246-248면.

4) 이진영, 2015 「전후 한국문학의 실존주의 고찰」 『한국문예비평연구』 47, 152면.

체제가 형성한 이분법적 도식을 내면화하여 그들 자신을 ‘타자’로 보고 경험한다.⁵⁾ 비록 김봉구는 서구문예사조에 침윤된 당대 현실을 비판했지만,⁶⁾ 실제 담론 장 안에서 이 문제를 넘어서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⁷⁾ 따라서 김봉구의 ‘증인문학론’과 그것에 자양분을 제공하는 앙드레 말로의 소설의 관계를 검토하는 작업은 단순히 전후 문학인들의 서양의 문예사조 수용 문제에 그치지 않고, 정

5) Robert Young, 2013 “The postcolonial Comparative”, *PMLA* Vol.128 No.3, Modern Language Association of America, pp.686-687.

6) 김봉구는 전후 현실을 ‘混流와 傳統·主體性의 상실’로 파악하며, “지금도 文學評을 보면 韓國의 作品을 의례 外國의 무슨 「主義」로 레테르를 붙여보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 모양이다. 자기 尺度가 없으니까 소화도 되지 않은 남의 尺度라도 빌려다가 주먹九九式으로 어림잡고 재어보자는 것”으로 비판했다. 김봉구, 1964 「신문학 초기의 계몽사상과 근대적 자아」 『한국인과 문학사상』, 일조각, 106면.

7) 서양의 타자에 대한 시선을 내면화하여 자기 자신을 그들의 시선으로 주시하는 태도는 「말르로部長·觀音菩薩」과 「강동氏와 實存主義」(김봉구, 1958 『불문학산고』, 신태양사출판국)에 나타난 일화에 잘 드러난다.

1957년 김봉구는 앙드레 말로가 동경에서 열리는 펜클럽 대회에 올 수 있다는 얘기를 듣는다. 그는 최근에 구한 경주 석굴암의 관음보살 사진을 말로에게 전달하고 싶어 한다. 왜냐하면 동서고금의 각 민족의 회화와 조각의 사진이 실려 있는 그의 『침묵의 소리』에 한국 것은 한 장도 없기 때문이다. 김봉구는 말로 같이 고대예술에 눈이 밝은 분이 본다면 과연 한국의 예술을 알뜰히 여겨줄지 불안해하면서도 석굴암 관음보살 사진을 그에게 전달해 한국 예술을 인정받고 싶어 한다. 하지만 말로는 동경대회에 참석하지 못했고, 대신에 다른 프랑스 문인들이 일본의 대회를 마치고 한국을 방문한다. 김봉구는 프랑스 문인들과의 좌담회에서 “유구무언”으로 앉아 있었다. 실존주의에 기반을 둔 주요 비평가였던 불문학자 김봉구는 그 좌담회의 좌장으로 온 프랑스 문인이 일본에서 ‘실존주의 따위가 무슨 문학이냐’고 얘기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스스로를 “관음보살식 불문학도”로 칭한 김봉구는 그 불문학자에 대한 비판을 글로 쓸 뿐, 좌담회에서는 감히 입을 열지 못한다. 대신에 가방에 1년 가까이 넣어놓은 관음보살 사진을 꺼낼지 말지를 고민한다. 그 사진을 무척대고 말로에게 전달해달라는 것도 무리이려니와 그 프랑스 문인이 한국의 예술을 살뜰히 알아봐 줄지도 확신이 안 섰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관음보살 사진을 가방에서 꺼내지 못한다.

이 일화에서 알 수 있듯이 김봉구는 예술의 권위자인 앙드레 말로에게서 한국의 고전미를 인정받고 싶어 한다. 오리엔탈리스트에 가까운 앙드레 말로가 수집하는 비서구 예술 컬렉션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다는, 그러면서도 태국이나 베트남보다 우리가 초라하지 않은지 걱정하며 끝내 관음보살상을 건네지 못한 ‘관음보살식 불문학도’ 김봉구의 태도는 세계문학으로서의 프랑스 실존주의 문학과 한국문학의 관계 설정에도 잘 드러난다. 이는 이 글의 본문에서 다시 다룰 것이다.

체성을 둘러싼 탈식민지적 과제와도 연결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글은 김봉구의 '증인문학론'과 김봉구의 『정복자』·『인간의 조건』 독해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김봉구는 앙드레 말로를 당대 증인의 대표로 꼽았으며, 그의 '증인문학론'은 말로의 소설을 증인문학의 대표로 꼽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본문에서 살펴보겠지만, 김봉구의 앙드레 말로 독해는 서구의 이분법과 오리엔탈리즘을 내면화했고, 그의 증인문학론과 앙드레 말로 독해는 갈등을 빚는다. 이러한 논의는 전후 문학의 실존주의 수용이 뚜렷한 결실을 보지 못했다는 기존의 결론을 반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 글은 실존주의를 도식적으로 수용했고, 그것의 문학적 형상화에서도 실패했다는 평가에 머무르지 않고, 앙드레 말로의 행동주의 자체가 지니는 문제점을 먼저 지적한 후 그것을 내면화한 김봉구 비평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자 한다. 또한 김봉구의 문학론과 그것의 바탕이 되는 앙드레 말로에 대한 해석이 빚는 갈등을 심화시키는 것으로서의 반공주의, 구체적으로 전쟁 체험을 특권화함으로써 일체의 논리와 주장을 무화하는 태도가 어떻게 김봉구의 증인문학론을 곤경에 빠뜨리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김봉구의 증인문학론 검토는 한국 전후문학의 실존주의 수용이 갖는 특성을 입체적으로 살필 수 있는 준거를 마련하는 의의를 지닌다. 김봉구의 비평은 비평담론 내에서의 구호로 그친 것이 아니라, 오상원과 선우휘 등 휴머니즘과 행동주의 문학에 기반을 둔 작가들과의 소설 창작과도 유의미한 관계를 맺었다. 그는 선우휘의 「불꽃」이 세계적 보편성을 획득한 문학이며 주인공 현은 “온 인간을 책임지고 고민하는 외로운 증인”이라고 고평했다.⁸⁾ 또한 김봉구의 증인문학론은 「균열」과 「모반」 등 테러리스트를 주인공으로 한 오상원의 소설과 긴밀한 연관을 가진다는 평가를 받는다.⁹⁾ 이처럼 전후 현실 사회에 대한 '행동'과

8) 김봉구, 1958 「지이드·죽음·불꽃」 『불문학산고』, 신태양사출판국, 274-275면.

9) 「증인의 문학: 앙드레 말로의 경우」(1955.12 『사상계』)를 바탕으로 김건우는 김봉구가 전쟁 '체험'을 바탕으로 한국 문학이 말로 등의 현대 문학과 동시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았고, 그가 체험의 증인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여긴 “테러리스트의 고독”, “증언”, “시간과 공간을 무시한 인간심리의 움직임” 등이 그의 '서울대 불문과 후배'인 오상원의 소설을 통해 구체화되어 나타난다고 말했다(김건우, 앞의 책, 120면). 김봉구는 『작가와 사회』(1973,

‘저항’ 그리고 해방공간과 한국전쟁을 직접 체험한 ‘증인의 증언’에 대한 강조는 당대 문단에서 폭넓게 공유되었고, 따라서 한국 전후 문학 기획의 모델로 주장된 ‘증인문학’과 앙드레 말로의 소설의 관계를 검토하는 것은 당시 전후문학과 실존주의의 관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다. 당시 한국 현실과 프랑스 문예 사조 사이의 갈등을 빚는 지점, 다시 말해 김봉구의 실존주의의 수용이 갖는 보편과 특수이 문제와 전쟁 체험의 절대화로 설명될 수 있는 반공주의는 이후 전후 문학인들이 실존주의의 도식적 수용을 극복해나가는 과정을 검토하는 준거점을 마련해주기 때문이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본론에서는 먼저 그의 ‘증인문학론’을 검토하고, 그가 증인의 대표로 세운 중국인 테러리스트가 갖는 문제점을 차례로 살펴볼 것이다.

2. ‘증인문학’: 세계적 동시성을 향한 욕망과 전도된 현실인식

김봉구는 「증인의 문학: 앙드레 말로의 경우」(1955.12 『사상계』), 「증언으로서의 문학」(1960.5 『사상계』), 「작가와 증언」(1964.8 『사상계』) 등을 중심으로 자신의 ‘증인문학론’을 펼친다. 그는 한국 전후 현실에는 사르트르적 경향보다는 ‘지드-말로-까뮈’의 경향이 요청된다고 보고, 앙드레 말로와 까뮈의 작품을 바탕으로 한 실존주의 문학을 ‘증인문학’이라 이름 붙인다. 하지만 그가 「증인의 문학: 앙드레 말로의 경우」에서 언급했듯이 그러한 ‘증인문학’, ‘인간 조건의 문학’은 ‘실존 문학’과 바꿔 쓸 수 있다. 그가 ‘증인’, ‘증언’, ‘목구멍’ 등의 용어로 실존주의 문학을 정리한 것은 일차적으로 사르트르보다 까뮈와 말로를 강조하기 위해서이고, 다음으로 ‘실존’ 등의 용어가 이미 한국의 전후 문학계에서 ‘때 묻고 낮간지러운 표현’, 다시 말해 생명력을 잃은 표현이 되었기 때문이다.

일조각)에서 이광수와 심훈의 참여문학적 성격을 분석했지만, 선우회에 대한 평가 외에는 다른 현장 비평을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그가 전후문학 비평계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차지하고, 실존주의 수용을 주장한 대표적인 문인이라는 점에서 그의 문학론 검토가 갖는 대표성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는 실존주의 문학가 각각의 상상과 주장의 차이보다는 공통적인 태도와 문학정신이 중요하다고 보았으며(1958.8 「실존주의 문학」 『사상계』), 실존주의적 세계관의 기본적인 구도를 설명할 때 사르트르의 이론을 가져와 설명했다. 실존주의 문학은 기본적으로 '허무와 부정에서 출발하여 인간 해방 후 정당화할 수 없고 무의미한 인생의 쓸모없는 저주받은 자유라는 벽' 앞에 놓인 인간을 그린다. 그 벽 앞에 선 인간이 취하는 행동에 따라 까뮈-말로 계열의 문학과 사르트르의 문학이 갈리는 것이다. 따라서 김봉구의 '증인문학', '행동주의 문학'은 기본적으로 실존주의 문학을 지칭하며, 실존의 자각 이후 인간이 취해야 할 태도로 '행동'과 '증언'을 강조하는 문학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김봉구는 시몽(Simon Pierre-Henri)의 논의를 빌려와 문학을 “消日거리 또는 休息的인 慰安으로서의 作品”, “純粹한 審美的 快感을 주는 作品”, “人間에 對한 窮極의 質問을 던지는 作品”으로 나누고, 이 세 번째 문학이 “摸索하며 싸우고 苦行하는 文學—世界와 人間の 乖離, 人間自身이 지닌 破裂(déchirure)과 아물 수 없는 傷處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聖者의 藝術’”이라는 점에서 증인문학과 연결된다고 보았다.¹⁰⁾

이러한 '증인문학(실존문학)'은 문학 사상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전환을 가지고 왔다. “첫째, 그것은 문학을 담배연기 자욱한 室內에서 넓은 세계로 해방시켰다. 둘째로 절망에서 출발했고, 항시 生死의 接境을 넘나드는 행동 세계를 무대로 하는 이상 그것은 끊임없이 인간의 근본 조건과 운명에 對面하는 문학이 아닐 수 없다. 셋째로 따라서 文學은 이미 美學的 위안이나 흥밋거리가 아니고 人間 總體에 대한 산 ‘證言’이다.”¹¹⁾

김봉구는 '정당화할 수 없고 무의미한 인생의 쓸모없는 저주받은 자유라는 벽' 앞에 선 인간의 주체성을 강조할수록 '통일과 융합'이 아니라 '분열과 고립'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실존주의의 기본적인 문제를 제시한다.

10) 김봉구, 1958 「現代文學의 知性的 霧圍氣」, 앞의 책, 138면.

11) 「實存主義文學」 위의 책, 154-155면.

現實이 이처럼 개개의 ‘눈뜬 意識’ 앞에 現前하는 世界라면 그것은 ‘意識’의 主體性임을 강조할수록 分裂과 孤立에의 方向이지 決코 統一과 融合의 方向이 아님은 물론입니다. 그러면 이 分裂과 孤立 生의 無意味에서 어떻게 휴머니즘 再建의 길이 열릴 것인가? 歷史上에 그리고 現在도 數많은 方向과 價値를 내걸고 저마다 휴머니즘의 깃발을 내세웠지만 휴머니즘의 기반은 最少限(共同의 目標는 없을망정) 人間이 서로 어떤 점에서 共通의 據點 위에 서고 있다는 人間의 어떤 本性을 인정하는 데서 成立할 수 있을 터입니다.¹²⁾

김봉구는 ‘지드-말로-까뮈’ 계열과 사르트르가 모두 ‘통념의 껍질을 벗어난 눈뜬 의식’을 강조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까뮈와 말로에게 중요한 것은 무의미한 삶 자체가 아니라, ‘반항’이다. 이때, 반항(Revolte)이란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하는 가치를 지키는 것, 다시 말해 침범할 수 없는 ‘人間의 本然(Nature humaine)’, 인간이 넘을 수 없는 한계, 본연 앞에서 돌아서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인간의 넘을 수 없는 한계와 본연(Nature humaine)’을 전제함으로써 ‘휴머니즘 再建’의 공통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김봉구는 사르트르가 이러한 인간의 연대성이라는 가치가 인간의 본질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까뮈의 『이방인』을 비판했으나, 바로 그 ‘價値의 發見’이 ‘휴머니즘 再建’의 토대이자 批判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봉구가 ‘휴머니즘의 재건’과 ‘가치의 발견’이라는 점을 들어 까뮈의 ‘반항’을 고평했다면, 앙드레 말로의 문학은 ‘체험’과 ‘행동’을 중심으로 사르트르의 문학과 비교된다. 그는 앙드레 말로가 세계사적 사건(전쟁)에 직접 참여했고, 그러한 벅찬 체험에서 행동하는 문학을 낳은 것을 고려할 때 사르트르의 사회참여는 “兒戲같은 관념의 작난”에 불과하다고 말한다.¹³⁾ 그는 또 다른 글, 「증언으로서의 문학」(1960.5 『사상계』)에서 전쟁과 같이 이성과 논리로 설명하지 못하는 사건을 체험한 증인의 증언은 사르트르와 같은 천재적 사변가와 대학자의 이론과 비교할 수 없는 진실을 담지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기존 논의에서 지적했듯이 김봉구의 사르트르 비판은 당대의 반공주의와 깊은 연관을 가진다.¹⁴⁾ 말로의 휴머니즘 자체가 ‘코뮤니즘’과 대립으로 이해되고 있으

12) 「휴머니즘의 再建-까뮈를 中心으로 한 批判」 위의 책, 111면(밑줄은 인용자).

13) 「증인의 문학: 앙드레 말로의 경우」 위의 책, 87면.

며(「증인의 문학」), 까뫼의 반항 중 역사적 반항(「공산주의에 대한 반항」)을 강조하는 것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휴머니즘의 再建」). 반공주의와 근대화 담론과 함께 '세계적 동시성을 향한 욕망과 전도된 현실인식' 역시 실존주의 수용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왜냐하면 김봉구는 전후 현실의 황폐와 후진성이 역설적으로 '증인문학'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우리에게 열린 그 가능성을 바탕으로 '증언'하는 문학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 삼는 '現代的'인 作品은 其中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는 自명한 일이다. ① ②에 該當하는 것이 量으로나 質로 劣勢하다던가 이미 價値가 없다는 뜻은 조금도 아니다. ①을 말하는 '後進的인 社會'에 산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① ②에 대한 關心을 잃었거나 ③에 보다 많이 興味를 느낀다는 平凡한 事實에서 출발하면 고만이다.¹⁵⁾

그러한 언어의 二重性 위에 철학이 구축되고, 이데올로기라는 神話가 現代 知性을 질식시키고, 대립된 이념으로 생사람을 分斷하는 폭력을 자행해도 우리가 저마다 빠저리게 체험한 사물의 핵심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는 目睹者다. 그러기에 우리는 증언해야만 하는 것이다.¹⁶⁾

앞에서 언급했듯이 김봉구는 문학을 ① 소일거리 또는 휴식적인 위안으로서의 작품, ② 순수한 심미적 쾌감을 주는 작품, ③ '인간'에 대한 궁극의 질문을 던지는 작품으로 나누었다. 그는 문학의 세 기능 사이에는 우열이 없으나 현대 문학의 본령은 ③에 있다고 본다. 흥미롭게도 그는 한국이 '後進的인 社會'라는 사실 때문에 이 현대 문학이 전후 문학의 본령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는 증인의 기능과 사명을 강조한 대표적 작가로 『二十五時』의 C. V. 게오르규를 들고 증인의 조건으로 '1. 목격자, 2 현실을 에누리 없이 투철히 파악하고 속임 없이

14) 김석수, 1999 「맑시즘과 실존주의 수용에서 본 한국현대(1920~60년대) 정신의 갈등 구조」 『동아 연구』,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나중성, 2010 「1950년대 실존주의 수용사 연구: “교양”으로서의 실존주의를 중심으로」 『헤겔연구』 27, 한국헤겔학회: 김진우, 앞의 책: 박지영, 앞의 논문.

15) 김봉구, 1958 「現代文學의 知性的 霧圍氣」, 앞의 책, 139면(밑줄은 인용자).

16) 김봉구, 1960 「證言으로서의 文學」 『사상계』 82, 300면(밑줄은 인용자).

발언할 수 있는 공정성과 용기를 갖춘 사람’을 든다.¹⁷⁾ 한국 작가는 앙드레 말로와 게오르규와 같이 전쟁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증인의 첫 번째 자격을 갖췄다. 김봉구는 우리가 전쟁을 체험하고 후진적인 사회에 살고 있다는 ‘평범한 사실’ 때문에 ‘인간에 대한 궁극의 질문을 던지는 문학’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담담히 언급하지만 그 뒤에는 한국 작가야말로 한국의 현실에 대해 증언하는 문학을 할 수 있다는 자의식이 깔려있다. 한국의 상황을 겪지 않고서 남한과 북한의 현실을 비교한 일본의 대학자도(『작가와 증언』), ‘코리아의 학살’이란 그림으로 한국 전쟁을 묘사한 피카소도(『증언으로서의 문학』) 한국 전쟁의 증인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 전쟁과 전후의 비참한 현실을 직접 경험한 목격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순히 목격자에 그쳐서는 앙드레 말로, 게오르규와 같은 작가와의 동시성을 확보하지 못한다. 우리는 공정성과 용기를 갖추 현실에 대해 증언해야 하고, 그것은 곧 휴머니즘의 재건으로 이어진다.

말의 가장 근원적이고 철저한 의미로 ‘휴머니즘 再建’의 영웅적이고 즐기찬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들에게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들의 출발점인 理性的挫折—그 否定과 희망의 실감이 유달리 뿌리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음도 부정할 수 없다.¹⁸⁾

식민지배와 동족상잔을 경험했고, 근대화와 통일이라는 과제 앞에서 우왕좌왕하는 ‘후진적 사회’에서 ‘우리’는 휴머니즘 문학의 출발점인 ‘理性的挫折—그 否定과 희망의 실감’을 유달리 깊이 공감할 수 있다. 문제는 그것이 ‘증언’이라는 ‘행동’으로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김봉구는 ‘증인문학론’에서 ‘전쟁 등으로 ‘부정과 허무’를 마주한 인간이 ‘증언’이라는 행동으로까지 나아가야 하며’(앙드레 말로), ‘그러한 행동은 유아론에 빠진 개인만의 것이 아니라 휴머니즘의 토대인 연대성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까뮈)고 주장했다. 이렇게 ‘체험’과 ‘행동’ 그리고 ‘연대성’은 김봉구가 한국 문학에 필요하다고 주장한 ‘증인’의 핵심 조건이다. 혁

17) 위의 논문, 299면.

18) 김봉구, 1958 『實存主義文學』 앞의 책, 160면.

명과 전쟁 등 ‘이성의 좌절’을 직접 체험했다는 점에서는 전후 한국과 양차 세계 대전을 겪은 유럽이 외견상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문제는 구체적 사건 속에서 행동과 연대의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이다. 이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3장과 4장에서 김봉구가 ‘증인’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제시한 앙드레 말로의 『정복자』·『인간의 조건』 속 ‘테러리스트’를 검토하고, 이 인물 유형이 한국 전후 소설의 새로운 인물로 바람직했는지를 살펴보고, 이 인물형과 김봉구의 증인문학론 사이의 갈등을 심화시킨 배경을 5장에서 살펴보겠다.

과연 그 중국인 테러리스트는 김봉구가 상정한 ‘증인’에 합당하며, 더 나아가 전후 한국문학이 지향해야 할 인물의 한 유형이 될 수 있었는가? 이때 중요한 논점은 첫째, ‘동양과 서양의 이분법적 구도 아래에서 동양인의 ‘행동’이 어떻게 가능한가?’ 둘째, ‘고독한 ‘증인’들이 타인과의 연대 가능성, 다시 말해 휴머니즘의 토대가 될 수 있는 가치와 윤리를 제공할 수 있는가?’이다.

3. 서양 정신의 세례와 불완전하고 극단적인 행동

앞 장에서 살폈듯이 김봉구는 증인이 사건을 직접 체험하고 목격해야 하며, 그 사건을 투철히 파악하고 속임 없이 발언할 수 있는 공정성과 용기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모든 목격자가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직접 체험하고, 그 ‘체험이 심화되어 내면의 억누를 수 없는 부르짖음’으로 나올 때 비로소 증인은 ‘증언’할 수 있다.¹⁹⁾

1925년 홍콩과 광둥 총파업을 다룬 『정복자』와 1927년 장제스의 상해 쿠데타를 배경으로 한 『인간의 조건』에는 부조리한 세계를 증언하는 증인인 행동하는 혁명가와 테러리스트가 등장한다. 그들은 신이 부재하는 세계에서 고독을 피하기 위해, 그리고 스스로 신이 되기 위해 ‘행동’한다. 김봉구는 『인간의 조건』의 모든 인물들이 비극 앞에서 눈을 돌리지 않는 ‘증인’이라고 했고,²⁰⁾ 행동하는 증

19) 김봉구, 2005 「작가와 증언」 『1950년대 전후문학비평 자료 2』, 월인, 613면.

20) 김봉구, 1960 「證言으로서의 文學」 앞의 책, 301면.

인으로 『왕도의 길』의 두 주인공, 『정복자』의 가린 등을 간단히 언급한다.²¹⁾ 하지만 그중에서 ‘고독’과 ‘행동’이라는 측면에서 증인의 대표로 조명을 받는 이는 중국인 테러리스트 ‘첸’(『인간의 조건』)이다. 그는 「증인의 문학」(1955.12 『사상계』)에서 앙드레 말로의 작품이 “관찰자의 문학이 아니라, 白兵戰에 피를 흘린 자로서 「證言」하는 역사적 事件의 증인진술”이며, “소박한 리알리즘과 自然主義의 논리적인 裁斷”으로는 전달할 수 없는 증인의 대표적 사례로 “殺戮과 주검의 최후의 몸짓—가령 폭탄을 꺼안고 자동차 밑으로 뛰어드는 테러리스트의 고독”을 들었다.²²⁾

이때부터 그는 벗어날 수 없는 孤絶 속에 빠진다. 동지와 더불어 白兵戰을 전개하는 시가전에서도 그는 외롭다. 드디어 테로는 아편과 마찬가지로 중독이 된다. (중략) <나>조차 <나>를 새끼지는 空虛……폭탄을 안고 상대자의 질주하는 차밀으로 뛰어든다.—끝으로 적어도 <나>자신을 빈틈없이 부둥켜안기 위해서. 이것은 주검이 아니다. <行動>이다.²³⁾

『인간의 조건』에 등장하는 중국인 테러리스트 첸을 설명하는 위의 글에서 김봉구는 첸의 근원적 고독과 ‘니힐’이 ‘行動’의 근원적 조건이 되며, 이 테러리스트의 고독과 행동은 곧 앙드레 말로 자신의 그것이라고 말한다.

“一國共合作의 광동정부 복진, 상해 봉기, 남경 점령, 드디어 표면화하는 國共分裂”이라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젊은 중국인 테러리스트와 다른 서양 혁명가들이 ‘행동’을 통해 당대 역사와 인간조건의 증인이 되는 동안, 한쪽에는 단순히 그 사건을 관찰할 뿐 전혀 ‘행동’하지 못하는 인간들이 있다. 『정복자』에서 중국의 정신적 지도자로 등장하는 ‘첸다이’와 『인간의 조건』에서 동양적 관조의 세계를 상징하는 일본인 ‘가마’이다.

그 양반은 자기 傳記의 祭物일 뿐이다. ㉠위인으로서 또는 賢者로서 혹은 영웅으로서의 자기에 스스로 얽매어 결정적인 시기에 결정적인 행동을 취하지 못하는 「大

21) 김봉구, 1958 「증인의 문학: 앙드레 말로의 경우」 앞의 책, 89면.

22) 위의 책, 86-87면.

23) 위의 책, 89면(밑줄은 인용자).

衆의 偶像」으로 고정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자기 손을 더럽히기를 두려워하는 - <까마귀 싸우는 곳에 白鷺야 가지마라……>식의 ㉠'그 따분한 동양적인 人格과 人生觀!²⁴⁾

이 작품 속에 자주 日本 음악과 미술을 통하여 그 피비린내나고 숨가쁘게 처절한 事件의 전개속에 틈틈이 ㉡'여울처럼 맑게 고이는 동양적 靜觀과 沈潛의 세계는 ㉢'불과 二주일의 日本 여행에서 체득한 것이다. 그 엄청난 행동의 세계와 더불어 編曆하는 도처에서 그 문화의 본질과 핵심을 체득하고야마는 통찰의 날카로움과 사색의 깊이에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²⁵⁾

김봉구는 「증인의 문학」에서 행동가로서의 앙드레 말로를 강조하기 위해 그를 첸다이와 비교한다. 중국 국민당 혁명초기 '중국의 간디'라는 존칭을 받는 첸다이는 '명예'에 사로잡혀 행동하지 못하는 인간이다(㉠, ㉡). 일본인 '가마' 역시 그의 외손자가 목숨을 잃는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동양적 관조의 세계에 머문다(㉢). 김봉구는 같은 글에서 "따분한 동양적인 人格과 人生觀"을 가진 첸다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여울처럼 맑게 고이는 동양적 靜觀과 沈潛의 세계"를 대표하는 가마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동양을 대표하는 두 사람 모두 '행동'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며, 그것이 『정복자』와 『인간의 조건』에 깔린 오리엔탈리즘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은 문제적이다. '체험'과 '증언'을 통해 세계 문학의 지위를 획득하고자 하는 욕망에도 불구하고, 김봉구는 '행동하지 못하는 동양'이라는 서구의 시선을 내면화하고 있는 것이다.²⁶⁾ 아니, 내면화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불과 두 주일 동안의 일본 여행에서 동양 문화의 본질과 핵심을 체득한 통찰의 날카로움과 사색의 깊이에 놀라움을 금치 않는다(㉣).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정복자』와 『인간의 조건』에 등장하는 중국인 테러리

24) 위의 책, 76면(밑줄은 인용자).

25) 위의 책, 80면(밑줄은 인용자).

26) '행동하지 못하는 동양'이라는 관념은 김봉구의 「맑스主義敎理와 實存的 휴머니즘: 장 폴 사르트르의 『唯物論과 革命』을 中心으로」(1961.1 『사상계』 90) 등에서 반복해서 나타난다. 이 글 295면에서 김봉구는 현실 개혁과 거리가 먼 관념론자들의 자유가 "상황을 넘어 떨 수 있는 근원적인 자유를 박탈"한다고 비판하면서 그 예로 "<東洋的> 超脫(解脫)"을 예로 들었다.

스트 홍과 첸은 동양인이면서도 어떻게 서양 혁명가와 함께 역사적 사건에 직접 참여할 수 있었을까? 김봉구 식으로 말하면 그들은 어떻게 ‘그 때분한 동양적인 인생관’을 넘어서 ‘증인’의 대표가 될 수 있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중국인 테러리스트 홍과 첸은 다른 유럽 출신 행동가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세계인식과 행동 양상을 보여주며, 그들의 고독에는 반식민지였던 중국의 현실이 반영되어 있다.

앙드레 말로의 『정복자』(1928)·『인간의 조건』(1933) 등의 구조는 유럽 제국과 아시아 식민지 간의 불균등한 권력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말로의 문화적 타자 형상화는 이러한 지정학적 조건을 반영한다.²⁷⁾ 앙드레 말로의 세계에서 혁명과 행동은 서양에서 온 혁명가의 전유물이다. 첸다이와 가마 등의 동양인은 결정적인 순간에 행동을 하지 못한다. 중국인 테러리스트, 즉 『정복자』의 홍과 『인간의 조건』의 첸이 행동을 할 수 있는 까닭은 그들이 모두 어렸을 때 부모를 잃고 유럽인의 손에 키워졌고, 유럽의 사상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의 그러한 ‘행동’의 모방은 서구 혁명가의 눈에 언제나 기이하고 극단적인 것으로 비춰진다.

『정복자』의 홍과 『인간의 조건』 속 첸은 어렸을 때부터 유럽인에 의해 키워지거나 교육을 받았으며, 개인의 정신적 위기와 중국이 당하고 있는 정치·경제적 억압에 저항하기 위해 극단적 테러리즘으로 나아간다. 논의를 『인간의 조건』의 ‘첸’에 집중해 보자. 장자커우의 약탈 사건 때, 부모를 잃은 첸은 루터파 신학교에서 스미스 목사의 양육을 받는다. 하지만 새로운 스승인 공산주의자 지조르를 만나면서 기독교가 그에게 준 존재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행동의 세계, 극단적인 테러리즘의 세계로 들어간다.

그리하여 그의 신앙은 아무런 위기도 겪지 않고, 마치 모래알이 손가락 사이로 새어나가듯 차츰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그는 이미 그리스도교적 신앙에 의해 중국 전통에서 떨어져 나갔고, 또한 세계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서 자기를 분리하는 것이 습성이 되어 있었다. 이번에는 지조르를 통하여 지금까지의 생활 단계가 영웅적 의식으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수련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신도 없고 그리스도도 없다면 도대체 이 영혼을 어찌할 것이냐?²⁸⁾

27) Marie-Paule Ha, 1997 “The Cultural Other in Malraux’s Asian Novels”, *The French Review* Vol.71 No.1, p.33.

서구 정신이 걸었던 길이 반식민지 중국의 한 청년의 정신에서 반복된다. 첸은 중국 전통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으로, 다시 '행동의 세계'로 진입한다. 신도 그리스도도 없는 세계에서 그는 오직 자신의 행동으로 삶에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 신의 부재와 인간 존재 조건 탐색이라는 서구 정신사의 과제가 첸에게서 오롯이 재현된 것이다. 이처럼 중국인 테러리스트가 행동할 수 있었던 까닭은 그들이 존재론적 체계와 초월적 세계, 그리고 그것의 부정이라는 서양 정신이 걸었던 길을 개체 수준에서 반복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세계에 속한 인간'인 첸은 유럽과 중국 어디에도 받아들여지지 못한다. 이는 '연대'의 문제를 다룰 때 다시 살펴보겠다.

행동하지 못하는 동양인과 행동하는 중국인 테러리스트가 빛는 같등은 그 젊은 중국인이 서구의 정신사에 접목된 뿌리 잃은 존재라는 사실 위에서 해결된다. 물론 김봉구가 언급했던 것처럼 『인간의 조건』 등 앙드레 말로 소설 속 인물들은 모두 사회에 뿌리박지 않은 인물들이며, '사회 속에 들어가기보다는 그 사회에 저항'한다.²⁹⁾ 『인간의 조건』의 혁명가, 가령 이상주의적 공산주의자 기요, 러시아 혁명을 거쳐 중국 혁명에 투신한 카토프 등은 '상해로 흘러들어온 잡다한 부동인간'이며, 이러한 "失郷·浮動人間群"의 극단적 대표가 바로 중국인 테러리스트인 '홍'과 '첸'이라는 것이다.³⁰⁾ 김봉구는 여기서 중국인 테러리스트를 서양 혁명가와 같은 분류로 놓지만, 이들은 엄연히 다르다. 똑같이 "失郷·浮動人間群"에 속할지라도 서구의 문화에서 배태된 공산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프랑스와 러시아 등을 떠나 상해에서 혁명을 도모하는 것과 서구의 사상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여 자신의 고향인 중국에서 벌어지는 혁명에 투신하지만 스스로 고향을 상실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다. 김봉구가 『인간의 조건』의 구절을

28) 앙드레 말로(김봉구 옮김), 2000 『인간의 조건』, 지식공작소, 86면. 이후 본문에서 해당 작품의 인용면수는 이 책의 것임.

29) 김봉구, 1981 「앙드레 말로 연구」 『인문논집』 7, 42면.

30) 기요가 전 북경대 교수이자 공산주의자 지조르와 일본인 아내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이라는 점에서 그를 서양인으로 분류하는 것이 엄밀하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작품에서 일본인 어머니에 대한 언급이 적고, 혼혈이 그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를 서양인으로 분류하였다.

인용해서 지적했듯이, 첸은 “비인간적인 철저한 自由를 바탕으로 이념에 철두철미하게 몰입함으로써 이제 中國人이 아니며, 중국을 떠났다.”³¹⁾ 서구 정신의 세례를 받고 극단으로 치달은 첸은 자신이 나고 자란 중국에서의 혁명에서 적극적으로 행동하지만 동시에 그 혁명으로부터 가장 소외된 것이다.

『인간의 조건』 주인공들은 신이 부재하는 세계에서 고독을 피하기 위해 ‘행동’하고 스스로 신이 되기 위해 ‘행동’한다. 고독으로부터 도피하고, ‘절대’를 추구하기 위해 첸이 선택한 행동은 ‘테러’이다.³²⁾ 앙드레 말로의 소설에서 테러는 인간의 숙명과 싸우는 인물들이 선택하는 행동 중 하나이나,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그것은 오직 서구 정신의 감화를 받아 극단으로 치달은 중국인의 몫이다. 유럽 출신의 혁명가들에게 이러한 중국인의 행동 모방은 불완전하고 극단적인 것으로 평가받는다. 『정복자』 속 홍의 행동은 오직 증오로만 추동되며 결국 혁명의 대의 자체를 위협하는 것으로 여겨진다.³³⁾ 『인간의 조건』에서도 첸과 같은 테러리스트는 ‘웅졸하고 거만한데다 정치적 센스가 전혀 없는 인간’으로 여겨진다(『인간의 조건』, 181면).

전후문학의 가능성을 탐구하면서 한국 문학에 ‘결여’되어 있는 행동하는 인물로 중국인 테러리스트를 꼽은 김봉구의 증인문학론은 위에서 살핀 문제점을 의식하지 못했으며, 더 나아가 해방 이후 분단과 전쟁을 겪은 남한의 인물이 어떻게 역사적 주체가 되어 ‘행동’할 수 있는가를 진지하게 검토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는 식민지 문제를 청산하지 못한 남한 사회의 특수성을 역설적으로 드러내 주며, 이후 남한 사회의 실존주의 수용이 극복해야 할 지점을 명확히 해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³⁴⁾

31) 김봉구, 1981 앞의 논문, 43면.

32) 배기열, 1955 「고녀와 고독, 죽음과 운명의 의미: 앙드레 말로의 「인간의 조건」 해제」 『외대어문논총』 7, 11면; 이경해, 1992 「앙드레 말로(Andre Malraux)의 「인간의 조건」에 나타난 운명의 도피방법: 파스칼적 요소」 『동대논총』 22, 45면.

33) 앙드레 말로(서호성 옮김), 1990 『정복자』, 금성사, 281-283면.

34) 해방과 분단 그리고 한국전쟁에서 역사의 주체가 되지 못한 한국인에게 행동의 가능성을 문제 삼은 연구로는 줄고, 2014 「선을 못 넘은 ‘자발적 미수자’와 선을 넘은 ‘임의의 인물」 『상허학보』 40 등이 있다.

4. 뿌리 뽑힌 인간과 연대의 불가능성

김봉구의 '증인문학론'에서 증인의 대표로 등장하는 중국인 테러리스트가 한국 전후문학이 지향해야 할 '증인'의 모델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먼저 앙드레 말로의 소설에서 중국인 테러리스트의 행동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말로의 고독한 '증인'들이 타인과 맺는 관계, 다시 말해 그들이 다른 사람과 연대를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보겠다. 김봉구는 실존주의가 단순한 허무주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휴머니즘 재건으로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였고, 따라서 '연대'는 실존주의 문학을 통한 새로운 전후문학 기획에서도 중요한 문제였다.³⁵⁾ 김봉구는 「휴머니즘의 再建」에서 '世界的인 證人'에는 지드의 세대와 말로-까뮈의 세대 차이가 있으며, 이 두 세대는 인간이 같이 '행동'할 수 있는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서 갈라진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들의 連帶的인 共同 鬪爭과 自己 犧牲, 이것은 벌써 虛無가 아니라 그러한 行動을 취할 만한 어떤 價値, 人間의 本然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까뮈가 아무리 낡은 휴머니즘을 공격하더라도 이미 까뮈는 여기서 휴머니즘의 礎石을 놓고 있음이 분명합니다.³⁶⁾

위 인용문에 나타나듯이 김봉구가 내세운 '증인'은 사회적 억압에 대한 저항의 식은 있으나 '분열과 고립'에 빠져 있는 개인이 아니라, 인간 본연의 가치를 공유하는 것에서 오는 "連帶的인 共同 鬪爭과 自己 犧牲"이 가능한 사람이었다. 즉 그에게 있어 연대의 기초를 마련하는 가치가 있어야만 '행동'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앙드레 말로의 소설 속 중국인 테러리스트들은 철저히 뿌리 뽑힌 존재이며, 그들에게는 일체의 연대 가능성을 찾을 수 없다. 그들이 가장 극단적인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들의 '뿌리 없음'에서 기인한다.

35) 연대와 관련된 문제를 다룬 김봉구의 글로는 「휴머니즘의 再建: 까뮈를 中心으로 한 批判」(1958.2 『자유문학』), 「니힐리즘을 넘어서 까뮈의 『正午의 思想』」(1960.3 『세계』) 등이 있다.

36) 김봉구, 1958.2 「휴머니즘의 再建: 까뮈를 中心으로 한 批判」 『자유문학』, 120면.

중국인 테러리스트의 이러한 속성은 『인간의 조건』의 다른 인물들에게도 나타난다. 『인간의 조건』 속 인물들은 가족이 없거나 잃어야만 그들은 자신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삶의 의미를 획득할 수 있다. 행동이 아니라 관조의 세계에 사는 동양인을 상징하는 일본인 ‘가마’를 제외하면,³⁷⁾ 앙드레 말로의 동양 삼부작에 나타난 대부분의 인물은 고향과 가족을 떠나 떠도는 인물들이다. 김봉구가 지적했듯이 이러한 일체의 애정관계로부터의 이탈은 인물들이 자신의 한정된 숙명에서 벗어나 ‘행동’의 세계로 들어가는 전제가 된다.³⁸⁾ 기요에게 메이와의 부부관계가 혁명 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카토프는 여공과의 애정관계에서 벗어났을 때 온전히 혁명에 투신할 수 있었다. ‘가족’이 족쇄가 되어 주어진 숙명에 순응하게 한다는 사실은 에밀리크에게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제아무리 악독한 운명의 신이라도 이번에는 서투른 솜씨를 보인 셈이다. ㉠그에게 아직 남아 있던 것을 송두리째 빼앗아감으로써 운명은 오히려 그를 완전히 자유롭게 해주었으니까. (중략) 목덜미 밑을 막대기로 얻어맞은 듯 양어깨가 힘없이 축 늘어지건만 그래도 느껴서는 안 될 그 광포한 환희, ㉡그 짓누르는 듯한 깊은 해방감의 환희를 물리칠 도리가 없었다.³⁹⁾

에밀리크는 처자식의 안위 때문에 혁명 동지들을 외면했고, 그로 인해 괴로워했다. 장개석의 군대가 상하이의 공산당 세력을 토벌하는 과정에서 에밀리크의 처자식이 살해당함으로써 그는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해방감의 환희를 느낀다(㉡). 이후 그가 동지들과 함께 ‘행동’의 세계에 온전히 투신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연대를 가능하게 하는 가치가 있을 때 행동할 수 있다는 진술과 일체의 애정 관계를 벗어날 때 행동할 수 있다는 언급은 일견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연대가 “무엇으로도 侵犯할 수 없는 人間의 本質”을 억압하는 세계에 대해 저항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이러한 모순은 쉽게

37) Marie-Paule Ha, *op. cit.*, p.41.

38) 앙드레 말로(김봉구 옮김), 『앙드레 말로 연구』 앞의 책, 445·455면.

39) 위의 책, 327면.

해결된다. 가족과 애정 관계가 인간을 숙명에 얽어매는 족쇄가 되는 반면, 뜻을 같이하는 행동하는 인간 사이의 동지애는 그들의 영웅적 면모를 돋보이게 하는 것이다. 가령, 산 채로 불에 타죽는 처벌을 앞두고 카토프는 자기 목숨보다 더 귀중한 자살용 청산가리를 옆에 있는 이름도 모르는 두 동료에게 주고, 자신은 화형을 당한다.

이처럼 앙드레 말로의 소설에서 서구의 '증인'은 목표를 공유한 동지들과는 연대의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아이와 여성은 그러한 연대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하지만 일체의 가족관계와 애정관계로부터 이탈한 중국인 테러리스트들에게는 이 동지적 연대의 가능성마저 박탈되어 있다. 첸의 극단적 테러리즘은 유럽 혁명가들로부터 배척받고, 같은 중국인 사이에서도 그는 근원적 고독을 느낀다. 서구의 사상과 가치관에 영향을 받은 중국 인물들이 같은 민족으로부터 철저히 소외된 사회적 부적응자라는 사실은 앙드레 말로 소설의 주요한 특성이다. 그들은 중국적 사고와 가치를 혐오하며, 자신과 뜻을 같이하는 동지 속에서도 소외감을 느낀다(『인간의 조건』, 38-39면).

시멘트와 석회로 된 용마루 장식물을 부상한 팔로 감아쥐고 오른손으로는 사슬 첫머리의 사내의 손을 잡았다. ㉠그래도 그는 자기고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 매달린 세 명의 사내의 무게가 온통 자기 팔에 걸리고, 그 무게가 마치 쇠몽둥이처럼 가슴속으로 뺨쳐왔다. (중략) ㉡'죽음이 가까이 있고 또한 동지들의 무게가 자기 몸을 둘로 찢을 듯이 당기고 있는데도 첸은 그들과 하나가 될 수 없었다. ㉢'이렇게 피를 같이 흘려도 소용이 없단 말인가?'⁴⁰⁾

혁명군 측 테러리스트 첸은 저항을 계속하는 정부군을 진압하기 위해 동료들과 함께 옥상에서부터 인간 사슬을 만들어 수류탄을 정부군이 들어 있는 보안서 창문으로 던진다. 자신의 목숨을 서로의 손에 맡긴 투쟁의 한가운데서도 그는 고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 심지어 같이 피를 흘려도 그는 옆에 있는 다른 중국인과 하나가 되지 못한다(㉢).

실존주의 소설의 주인공들은 기본적으로 그들이 속한 사회적 질서로부터 유리

40) 위의 책, 133면.

된 ‘이방인’이다. 하지만 『인간의 조건』 속 첸의 소외는 그러한 기본적인 절연감에 제국-식민의 위계질서에서 비롯된 스스로에 대한 혐오와 배격이 들어가 있다는 점에서 이중적이다. 첸은 비록 ‘행동’하지만 그 행동은 인간의 본연을 지킨다는, 다시 말해 연대적 행동을 가능하게 가치 위에 기초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중국인 테러리스트는 ‘연대적인 공동 투쟁과 자기희생’이란 행동과는 거리가 멀며, 따라서 증인문학의 모델로 적절하지 않다. 비록 동지적 연대라는 제한된 형태로나마 연대에 기반을 둔 행동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서양 혁명가가 아니라 중국인 테러리스트가 증인문학의 대표적인 예로 조명을 받은 것일까?

5. 문학, 정치, 김봉구

서론에서 밝혔듯이 이 글은 사르트르·까뮈·앙드레 말로가 한국 전후 문학에서 굴절되었다고 할 때, 그 굴절 양상에서 김봉구와 전후 한국 문단이란 렌즈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물론 앙드레 말로의 작품 속에 나타난 오리엔탈리즘과 제국과 식민지의 위계질서, 그리고 남성중심의 제한된 연대 등의 문제가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김봉구의 증인문학론에서 반복된다는 사실은 프랑스 실존주의에 깊은 영향을 받은 한국 전후문학의 특성을 새롭게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다른 비평가와 작가를 함께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왜 서구 코뮤니스트 혁명가가 아니라 중국인 테러리스트가 대표적 ‘증인’으로 조명을 받았는지를 우선적으로 밝혀보겠다.

『정복자』와 『인간의 조건』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모두 ‘증인’의 다양한 모습이라고 했지만 김봉구는 긍정적인 혁명가가 아니라 불완전하고 극단적인 행동 때문에 그들에게서 소외당하고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테러리스트를 대표적인 증인으로 꼽고 그의 고독과 행동을 조명한다. 선협적인 것 일체를 거부한 사르트르의 실존주의를 비판하며, 인간의 본질에 바탕을 둔 연대를 통해 휴머니즘의 길을 열은 까뮈를 상찬한 그는 왜 일체의 인간관계로부터 이탈하여 죽는 순간까지

고독했던 테러리스트를 ‘증인’의 대표로 삼았을까? 아니 그 전에 기존 질서를 부정하고 이성의 좌절을 겪은 인물이 ‘인간의 넘을 수 없는 한계와 본연(Nature humaine)’이라는 모호하고 불확실한 기반 위에서 연대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일까? 이러한 질문들은 앙드레 말로 등을 굴절시켰던 김봉구와 한국전후문단이 란 렌즈가 가지고 있는 이면들을 드러내 줄 실마리를 마련해준다.

먼저 마지막 질문을 생각해보자. 김봉구는 사르트르와 까뮈·말로를 가르는 기준으로 인간의 본질을 전제하느냐의 유무를 꼽았다. 김봉구는 까뮈와 말로를 높이 평가하면서 현상학에 철저했던 사르트르의 고지식함을 비판하고, 사르트르가 시도했던 실존주의와 맑시즘의 결합이 애초부터 불가능했음을 논증한다. 하지만 사르트르가 봉착한 ‘행동’과 ‘연대’의 난맥상은 김봉구의 증인문학론이 갖는 문제이기도 했다.

김봉구는 「맑스主義敎理와 實存的 휴머니즘: 장 폴 사르트르의 『唯物論과 革命』을 中心으로」에서 공산주의의 교조적인 태도를 극복해 맑스주의와 실존주의의 화해를 시도한 사르트르의 노력이 갖는 의의와 한계를 지적한다.⁴¹⁾ 사르트르는 현실의 억압을 폭로하고 그 현실을 변화시키는 피압박자의 ‘행동’을 강조한다. 하지만 혁명이 혼자만의 것이 아닌 이상 공유되는 가치가 있어야 하기에 “모든 혁명의 근원에는 《우리도 역시 인간이다》라는 주장이 가로놓여”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러한 행동은 단순히 지배계급의 가치와 도덕을 다른 선형적 선으로 대치하는 것이 아니라, ‘잠정적이고 실현되지 않은 가치를 향해 끊임없이 뛰어넘음의 연속’이 되어야 한다.⁴²⁾ 인간의 절대적 자유와 주체성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기존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변화시키려는 사르트르의 고민이 묻어나는 논의이다. 김봉구는 이 논의에 나타난 논리적 모순을 다음과 같이 예리하게 분석한다.

41) 박지영은 김봉구가 전쟁과 북한 공산주의의 교조적 태도를 직접 겪은 세대로서 4.19 혁명 이후의 젊은 세대의 맑시즘 혁명 이론 수용을 경계하는 입장에서 이 글을 썼고, 그러한 반공주의의 맥락에서 사르트르의 고민이 단순화되었음을 밝혔다. 박지영, 앞의 논문, 110-117면.

42) 김봉구, 1961.1 「맑스主義敎理와 實存的 휴머니즘」 『사상계』 90, 294-295면.

그렇다면 人間에게는 인간의 본질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사르트르는 言外에 긍정하는 셈이 아닌가? ㉠사실 그렇지 않고 그의 주장대로 人間은 시시각각 자기를 앞으로 投企하여 스스로 자기를 만들어가는 것에 不外하다면, 어떻게 휴머니즘이 가능하단 말인가? 《우리도 <인간>이라》는 말이 대체 무엇을 의미할 수 있겠는가? 말로, 썩찍썩베리, 까뫼 등은 人間을 神과 대치할 만큼 人間의 존엄을 위하여 싸웠거니와, 사르트르는 자기 이론에 사로잡혀 그만 썩찍스가 말한 人間과 個人의 관계를 혼동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확실히 한 <個人>은 다른 개인의 상대적인 눈으로 보나 또는 저 자신 主體的 單獨者·唯一者로서 볼 때 <本質에 앞서 存在하는> 그 무엇일게다. ㉡허나 <人間>이라고 할 때 그 類似概念 자체가 벌써 어떤 본질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겠는가.⁴³⁾

끊임없는 선택에 의해 자신을 만들어가는 ‘개인’과 ‘개인’ 사이에 연대성을 핵심으로 한 휴머니즘은 가능하지 않으며(㉠), 이러한 난맥상을 극복하기 위해 사르트르가 ‘우리도 인간이다’라는 말로 혁명을 정초하는 순간 그것은 ‘개인’을 넘어선 ‘인간’이란 본질을 끌고 들어올 수밖에 없다(㉡). 사르트르의 고민을 정확하게 짚어낸 김봉구는 그가 왜 이 문제와 씨름했는지를 이해하기보다 그것을 ‘혼동’으로 간단하게 처리한다. 김봉구는 사르트르의 맑스주의 이데올로기 비판이 적절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들의 혁명 수행의 방법과 과정과 그 결과’에도 공산주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사르트르를 어리석다고 비판한다. ‘지드 말로, 까뫼 등 한 번 코뮌리즘에 접근했던 총명하고 성실한 작가들이 코뮌리즘에 대한 환멸과 규탄을 발표했음에도’⁴⁴⁾ 사르트르는 여전히 맑스주의와 실존주의의 결합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人間’이라는 선형적 절대성 위에 혁명을 정초한다고 해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인간이 넘을 수 없는 한계’라는 인간의 본질은 사회 변혁의 구체적 모습을 함의하기에는 지나치게 모호하다. 그렇다면 김봉구가 증인문학의 모범으로 삼은 앙드레 말로의 작품에서 이 문제는 어떻게 나타날까?

김봉구는 가족과 민족, 그리고 국가를 떠난 정신적 무국적자들이 앙드레 말로의 전기 작품 등에 등장하는 까뫼를 ‘1920년대까지의 코스모폴리티즘의 유행과

43) 위의 논문, 294면.

44) 위의 논문, 288면.

그 뒤를 이은 인터내쇼날에의 기대와 傾倒' 때문이라고 보았고,⁴⁵⁾ 작품 속 인물들과 마찬가지로 앙드레 말로 역시 공산주의 운동과 깊은 관련을 가졌다. 더욱이 『인간의 조건』 등에서 연대는 계급혁명이라는 목표를 공유한 남성 혁명가들 사이에서만 가능했다. 거칠게 말하면 앙드레 말로의 소설 속에서 행동과 연대는 공산주의 혁명이라는 목표 아래에서 불완전하게 공존할 수 있었던 것이다.

김봉구는 「앙드레 말로 연구」에서 앙드레 말로의 전기 삼부작에 나타나는 '반사회·반세속 고립인간군'을 '혁명가'와 '완전 이탈의 테러리스트' 등으로 분류한다. 혁명가는 세 유형으로 다시 나뉜다. 투쟁의 목적과 결과보다 힘의 효율적 행사에 관심이 있는 '아나키스트·혁명 모험가', 니힐리스트가 아닌 진정한 신념과 정열과 행동력을 갖춘 '코뮤니스트 혁명가', 무조건 당의 명령에 복종하여 효과적으로 혁명을 수행할 뿐인 '직업적 혁명가'. 신념과 정열과 행동력에 인간적 감성까지 갖춘 영웅적인 코뮤니스트 혁명가가 아니라 왜 '인간 세계에서 떨어져 나간 어둠의 세계에 잠입한' 중국인 테러리스트가 '증인문학'의 대표가 되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김봉구가 앙드레 말로의 '大回歸와 逆離脫'을 이해하는 방식을 살펴보자.

김봉구는 「佛文學 散策」(1956.10 『신태양』)의 마지막 장, 「文學, 政治, 싸르트르」에서 우리의 체험을 통해 “‘정치는 문학보다 위에 있고’ 따라서 ‘문학은 정치 노선에 충실하여야 하며’, ‘정치와 문학은 구별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논리”를 받아들일 수 없게 되었다고 말한다.⁴⁶⁾ 문학은 정치성, 특히 허구성을 용인하는 선전의 성격을 띠어서는 안 되며, 문학을 타협 위에 세우는 것은 문학을 짓밟는 일임을 말한 후 그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는다.

얼마든지 정치에 參與하라. 그러나 일단 펜을 들 때는 두 손을 깨끗이 털고 들어라. 더구나 정치마당의 진흙을 넣지 않도록 명심하라.⁴⁷⁾

이처럼 정치 참여와 문학 창작 행위를 엄격히 구분하면서 그는 “稀代の 행동

45) 김봉구, 1981 앞의 논문, 41면.

46) 김봉구, 2005 「佛文學 散策」 앞의 책, 124면.

47) 위의 책, 125면.

가 ‘앙드레·말로’는 문학인으로서의 聖職者의 道를 닦았고 그 戒律을 지켜왔다.”고 말한다. 소설가로서의 앙드레 말로와 2차 세계 대전 이후 정치인 앙드레 말로가 뚜렷이 구별되는 점을 들어 문학을 통한 정치 참여를 주장한 사르트르를 비판한 것이다. 순수·참여 논쟁에서 ‘순수’문학의 정치성과 사르트르의 참여문학의 성격을 논하는 것은 이 글의 과제에서 벗어나 있다. 여기서는 소설가 앙드레 말로에서 정치인 앙드레 말로로의 ‘대회귀와 역이탈’을 이해하는 김봉구의 모순이 혁명가가 아닌 테러리스트를 증인의 대표로 호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임을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김봉구는 「앙드레 말로의 大回歸와 逆離脫」에서 그가 ‘코뮤니즘 혁명 진영에서 조국과 유럽문명 수호로’ 전환한 까닭을 러시아 코뮤니즘에 대한 환멸에서 찾는다.⁴⁸⁾ 인터내셔널과 계급혁명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고, 결국 공산주의가 ‘힘과 위대성만을 추구하는 러시아 코뮤니즘’으로 전락했음을 직접 보고 체험한 그는 (부르주아)사회와 투쟁하는 인물을 묘사하는 소설 창작을 그만두고, 러시아와 대항해 유럽과 프랑스 문화를 수호하는 정치가로서 새 삶을 시작한다. 앞서 살폈듯이 김봉구는 스탈린 집권 이후 러시아가 보여준 모습을 통해 맑시즘과 결별한 앙드레 말로 등의 인물들을 ‘충명하고 성실한 작가’로 칭하며 여전히 맑시즘에 대한 기대를 놓지 않은 사르트르를 비판했다. 만약 맑시즘의 영향 아래에서 소설을 창작하던 삶에서 정치가로의 ‘대회귀와 역이탈’이 단순한 분리가 아니라 당위적 귀결이라면 그의 소설들은 부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는 ‘전반기의 3대 소설(『왕도의 길』, 『정복자』, 『인간의 조건』)이 가장 순수하게 말로적인 모든 것이 집중 투입된 작품’이라고 평가한다.⁴⁹⁾

‘이성의 좌절’과 기존 제도와 질서에 대한 부정 위에서 어떠한 ‘본질’로도 환원되지 않은 개인의 실존과 주체적 행동을 강조하는 실존주의 문학(증인문학)이 ‘조국과 유럽문화라는 숙명에의 순응’과 “가슴으로 느끼는 구체적인 국토와의 핏줄기의 결합의 실감”⁵⁰⁾과 함께 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 앙드레 말로가 구체적인

48) 김봉구, 1985 「앙드레 말로의 大回歸와 逆離脫: 전기연구」 『佛語佛文學研究』 20.

49) 앙드레 말로(김봉구 옮김), 앞의 책, 37면.

50) 김봉구, 1985 앞의 논문, 60-61면.

체험 끝에 깨달은 ‘공산주의에 대한 환멸’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그것과 연관을 맺고 있는 전반기 소설을 가장 말로적인 것이라고 평가하는 데서 그의 곤경이 드러난다. 물론 김봉구는 전반기 유럽 부르주아사회에 대한 반세속이 후반기 좌익 인텔리 속물의 유행풍조에 대한 혐오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말로의 저항정신이 지속되었음을 지적하지만,⁵¹⁾ 앙드레 말로의 소설 속 인물이 보여주는 ‘뿌리 상실’과 국가와 민족이라는 숙명에의 귀의는 섞일 수 없다.

전반기 소설가와 후반기 정치인으로 뚜렷이 나뉘는 앙드레 말로의 삶이 문학이 정치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기 위해서는 그 전·후반기 삶이 독자적으로 의미를 가져야 한다. 하지만 김봉구의 논의에서, 정치인 앙드레 말로는 끊임없이 전반기의 소설에 간섭한다.

김봉구는 앙드레 말로가 드골에 대한 ‘좌익의 일방적이고 집요한 허위선전·모략, 다시 말해 러시아식 선전기술’에 대항했음을 말한 후, 그러한 러시아식 선전기술은 “해방 직후 북한에서 담장마다 페인트로 <살인, 강도, 방화 괴수 金九>, <미제국주의 앞잡이 이승만>, 반대로 <위대한 민족의 영도자, 김일성 장군>이라고 큼직이 써 놓은 수법”과 같다고 말한다.⁵²⁾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김봉구는 말로가 공산주의에 대한 환멸을 경험하기 이전에 이미 그러한 ‘비열한 짓’을 소설에 형상화했음을 ‘흥미로워’한다.

그 강직한 기사들(드골과 말로 등의 레지스탕스, 인용자)이 이 <비열한 짓>과 타협할 수는 없는 일이다. ㉠흥미있는 일은 말로가 실제 경험도 못해본 때(1928년)에 발표한 『정복자』에서 이미 그런 수법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점이다(첸다이의 죽음을 반동분자의 테러라고 선동하는 뼈라를 붙이게 한 가린에게, 브로딘은 한 술 더 떠서 무참히 고문 학살당한 동지의 추도식을 이용하여, 선동강연을 하라 하여 그를 분격케 한 점). ㉡'요컨대 상인(대사업가 브로딘을 평한 말 상기)의 <비열한 짓>에 대한 기사들의 거의 생리적인 반발이다.⁵³⁾

혁명가들을 주인공으로 삼은 『정복자』, 『인간의 조건』 등을 앙드레 말로 문학

51) 위의 논문, 68면.

52) 위의 논문, 67면.

53) 위의 논문, 68면.

의 본령으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증인문학’을 정초한 이상, 그 내용과 주제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러시아와 북한 공산주의라는 저항과 혐오의 대상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출발한 김봉구는 앙드레 말로의 소설 속에서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을 무리하게 끌어낸다. 아직 ‘러시아 공산주의의 교조주의적이고 비열한 정치 행태’를 경험하기 이전에 소설 속에 그러한 모습을 형상화했고(㉠), 이는 공산주의자의 비열함에 대한 기사(드골과 앙드레 말로)의 생리적 반발을 잘 보여준다는 것이다(㉠’). 김봉구는 이 글의 마지막에서 『정복자』 등에 나타난 공산주의의 정치 선동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그 독선적 흑백논리, 진리 독점 행세”로 나타나고 있으며, 앙드레 말로는 아직도 그러한 선동에서 벗어나지 못한 좌익 인텔리 속물(사르트르 일파)을 혐오하고 있다고 말한다.⁵⁴⁾ 이성과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부정과 허망의 실감’을 ‘목소리’로 증언하는 영웅적 인물들을 그린 『정복자』 등이 여기서는 비열하고 이기적인 공산주의의 행태를 예견하는 소설로 바뀐다. 물론 그가 비판한 인물인 가린과 브로딘은 앞서 살핀 혁명가의 세 유형 중 각각 ‘아나키스트·혁명 모험가’와 ‘직업적 혁명가’로, 진정한 행동가로서 한계를 지닌 인물들이다. 문제는 그런 인물들이 전면화되는 가운데 ‘준엄하고 강인한 의지’를 갖고서 신념을 지키기 위해 죽음에 이르기까지 ‘행동’하는 카토프와 같은 ‘코뮤니스트 혁명가’는 조명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김봉구가 그의 주장처럼 ‘문학’을 ‘정치’와 독립된 것으로 보지 못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앞서 살핀 것처럼 한계가 분명히 있지만 소설 속 인물 중에서는 ‘행동’과 ‘연대성’에 기반을 둔 휴머니즘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코뮤니스트 혁명가’가 아니라 ‘행동과 연대의 불가능성’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중국인 테러리스트가 증인문학의 모델로 선택된 것은 이처럼 김봉구가 ‘후반기 앙드레 말로의 입장’에서 ‘전반기 앙드레 말로의 문학’을 바라봤기 때문일 것이다. 다시 말해 비열한 정치적 선동과 교조주의적이고 독선적인 태도를 지닌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환멸과 대결의식이 ‘증인문학’의 배면에 깔려있는 한, 공산주의 혁명가는 증인의 대표로 조명될 수 없으며 그 대신에 그 유럽 혁명가들로부터도 소외된 중국인 테

54) 위의 논문, 68면.

러리스트가 ‘증인’의 대표로 소환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로 인해 증인문학의 모델이 그 문학론의 핵심인 ‘행동과 연대’를 배반하는 모순이 따라오게 된 것이다.

김봉구의 ‘증인문학론’과 그 문학론의 바탕이 되는 앙드레 말로 문학에 대한 이해가 갖는 모순들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모순과 굴절을 ‘반공주의’로 설명할 때, 그 ‘반공주의’를 지지하는 것은 그가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는 ‘체험’이란 단어다. 증인은 전쟁과 같은 사건을 직접 ‘체험’한 사람이며, 따라서 그만이 ‘증언’할 수 있다. 그러한 체험 앞에서 어떠한 논리도 목소리를 낼 수 없다. 이러한 ‘체험’은 “나는 「샤르트르」 같이 예리하고 총명한 지성의 소유자도 빠져린 체험인 앞에서는 때로 헛소리 같은 말을 할 수 있음을 발견하고 매우 애석한 느낌이 었다.”⁵⁵⁾ 라는 말에서처럼 전쟁과 혁명을 직접 경험한 앙드레 말로의 ‘증언’과 그렇지 못한 샤르트르의 ‘논리와 소설’을 비교할 때 항상 등장하는 단어이다. 이 앙드레 말로의 문학과 증인문학론의 기반인 ‘체험’은 김봉구와 그의 세대를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2장에서 살폈듯이 전쟁 체험, 즉 전후 현실의 황폐와 후진성은 역설적으로 ‘증인문학’이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갖게 만들었다. 이러한 ‘체험’은 다른 나라와 한국을 구분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의 세대를 특권화하는 데에도 사용된다.

㉠우리들의 빠져린 체험이 <體驗없는 世代>(그들은 스스로 <새 세대>를 자부하지만 그들이 속단하는 바와 같은 世代之 차이는 결코 아니다)에게까지 효력을 마친 것으로 여긴다면 위험천만한 오산이며 어리석은 착각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탄압으로 언제까지나 지탱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그들의 척도는 오로지 원리원칙이며 이론이다. 따라서 그들을 설복하고 납득시키려면 우선은 그들의 척도를 사용하여야 하며 ㉡기성세대는 그만한 성의와 아량을 베풀 의무가 있을 줄 안다.⁵⁶⁾

앙드레 말로의 ‘빠져린 체험’ 앞에 샤르트르의 ‘논리’가 소용없듯이, 김봉구와

55) 김봉구, 2005 『佛文學 散策』 앞의 책, 124면.

56) 김봉구, 1961.1 『맑스主義敎理와 實存의 휴머니즘』 『사상계』 90, 289면(밑줄은 인용자). 김봉구와 4.19 세대와의 관계와 김봉구가 반공주의 맥락에서 샤르트르를 이해한 구체적 방식에 관해서는 박지영, 앞의 논문 참조.

그의 세대가 전쟁과 북한 공산주의의 집권 현실을 직접 체험했다는 사실 앞에 4.19 세대의 주장은 무기력하다(㉑). ‘체험’만을 내세워도 충분하지만, 김봉구는 ‘체험 없는 세대’의 척도인 이론 차원에서 맑시즘의 문제를 밝혀주는 성의와 아량을 베풀겠다고 말한다(㉒).

이처럼 전쟁체험은 한국 전후 문학이 앙드레 말로와 같은 ‘증인문학’의 가능성을 열어 놓으면서 동시에 전쟁의 직접적인 체험이 없는 세대의 문학과 공산주의에 대한 저항이라는 목적에서 벗어난 문학의 가능성을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동시에 그러한 체험의 절대화는 공산주의 혁명가가 아닌 중국인 테러리스트를 증인의 대표로 조명하게 함으로써 ‘증인문학’의 내적 논리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6. 나오며

김봉구의 증인문학론과 앙드레 말로의 소설 사이의 관계를 살폈다. 김봉구의 ‘증인문학론’은 이처럼 앙드레 말로의 소설에 깔린 서양과 동양이라는 위계질서를 내면화하고, 1930년대 프랑스와 1950년대 한국이라는 역사적이고 지정학적 차이를 정치하게 살피지 못했다. 김봉구는 앙드레 말로의 중국인 테러리스트들을 한국문학이 요구하는 ‘증인’의 대표로 꼽았다. 하지만 그들은 제국과 식민지의 위계와 서구의 타자인식이 반영된 인물이었으며, 그러한 인물을 한국문학 속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식민지배체제가 형성한 이분법적 도식을 내면화하여 우리 스스로를 ‘타자’로 보고 경험하는 것과 긴밀한 연관을 맺는다.

김봉구의 증인문학론과 그것이 출발한 앙드레 말로 작품의 해석 사이의 간극, 그리고 증인문학의 모델로서 중국인 테러리스트가 갖는 모순은 전후 문학이라는 특수한 배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식민지 문제를 청산하지 못했고, 한국전쟁의 체험이 여타의 논리와 주장을 압도했던 당대 문단의 특성이 그러한 실존주의 문학 굴절의 원인이기 때문이다. 김봉구가 보여준 모순과 고민은 이후 전후문학의 의미와 성과를 정치하게 살펴볼 기회를 제공한다. 김봉구의 ‘증인문학론’이 보여

주는 문제, 즉 '실존주의를 배태한 서구의 문화적 전통을 공유하지 않는 동양인에게 '행동'과 '증언'은 어떻게 가능한가?', '실존주의의 고독한 인물들의 연대는 어떻게 가능한가?', 그리고 '전쟁 체험과 반공주의의 절대화 속에서 실존주의 수용은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었는가?'는 한국 전후 문학의 특성을 이해하는 핵심이기 때문이다. 오상원과 최인훈 그리고 박연희 등의 소설가가 실존주의의 적극적인 전유 과정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나갔는지를 지속적으로 연구해나갈수록 하겠다.

주제어 : 김봉구, 앙드레 말로, 증인문학, 실존주의, 체험, 행동, 연대

투고일(2015. 11. 2), 심사시작일(2015. 11. 9), 심사완료일(2015. 12. 3)

<Abstract>

Qualifications of ‘Witness’ and a Possibility of ‘Action and Solidarity’

Kim JinGyu *

‘The literature of the witness’ suggested by Kim BoongKu is a renaming of existentialist literature that focuses on Andre Malraux and Albert Camus. Kim argued that post-war Korean literature could be the literature of the witness which was regarded as World Literature at that time. An event such as war could not be explained by reason and logic. A witness is a person who experienced this tragic event. Nevertheless, the witness does not merely indulge in nihilism but testifies against violence and absurdity and acts based on humanism. Therefore, Kim thought that Korean writers who had experienced the Korean War were qualified to be witnesses and that they should be a witnesses. Kim regarded Malraux’s novels such as *Les Conquerants* and *La Condition humaine* as the classic exercise of ‘the literature of the witness’ and picked the Chinese terrorist Tchen of *La Condition humaine* as a typical witness. Kim, however, absorbed Malraux’s prejudice that westerners can act and Asians cannot. Even the act of the Chinese terrorist is based on such dichotomy and the order of rank between empire and colony. Moreover, the Chinese terrorist could not show any solidarity with other western comrades and the Chinese people.

As stated above, although the Chinese terrorist experienced the tragic event, he did not satisfy the other conditions of a witness: act and solidarity. Kim picked the Chinese terrorist who is contradictory to the literature of the witness instead of picking communistic revolutionists who acted based on conviction and solidarity. He could not make a communistic revolutionist a model of witness because of the Korean War experience and anti-communism prevalent at that time. The war experience had given the

* Doctor course completion,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post-war Korean literature a chance to become world literature such as existentialist literature, but at the same time, anti-communism and absolutizing the war experience had stifled the unconstrained and diverse envisioning for a blueprint of Korean literature.

Key Words : Kim BoongKu, Andre Malraux, The literature of the witness, existentialism, experience, act, solidarity